계룡건설산업, 러시아 학생 초청 간담회 개최

계룡건설이 지난 9월 23일, 국내 대학교에 유학 중인 러시아 하바롭스크 국립극동교통대학교 교환 학생 27명을 회사로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초청된 학생들은 국내 모대학교와 가진 교환 학생 프로그램에 따라 현지에서 1, 2학년을 마치고 어학연수를 거쳐 국내 대학에 3, 4학년으로 편입한 유학생들이다. 초청 학생들은 계룡건설에서 시공 중인 대전지방경찰청 공사 현장과 아파트 모델하우스 등을 둘러보고 회사 소개를 들은 뒤 이시구 회장 등 회사 경영진과 간담회를 가졌다. 계룡건설 관계자는 "이번 초청 행사는 하바롭스크에 진출한 회사의 이미지와 위상을 높이고 앞으로 협의를 통해 현지 우수 학생들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하려고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계룡건설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러시아 하바롭스크에 진출해 '리슈빌' 브랜드로 주상복합 아파트 214세대를 공사 중이다.

삼성물산 건설부문, 인도 델리에서 해비타트 봉사 활동

삼성물산 건설부문(대표이사 이상대)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비타트 봉사단으로 인도 델리에서 자동차로 2시간쯤 떨어진 오지 마을인 발스와(Bhalswa)에서 미국, 일본 등 5개국 자원 봉사자들과 함께 글로벌 사회 공헌 활동을 벌였다. 9월 27일부터 10월 5일까지 8박 9일 동안 대한민국,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의 자원 봉사자 70여 명이 발스와 지역에 총 16채의 집을 지어주는 '월드 해비타트 데이' 행사에 대한민국 대표로 삼성건설 직원 11명이 자원 봉사 활동을 한 것이다.

이번 행사는 단순히 한 국가만 참여해 봉사 활동을 벌인 것이 아닌 각국에서 온 자원 봉사자들과 함께하는 것이어서 국제 교류의 장으로서 의미가 높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하게 삼성건설이 봉사단을 꾸려 참여한 것이어서 대한민국에 대한 이미지 고취는 물론 국위 선양에도 일조하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이러한 해비타트 봉사 활동은 사회 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00년부터 시작되어 내년이면 해비타트 활동을 한 지 10년이 된다.

우림건설, '달러 모으기' 캠페인 전개

우림건설(대표이사 심영섭)이 10월 13일부터 일주일 동안 국내 40여 개 현장을 비롯해 전 임직원이 '달러 모으기'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해외 출장이나 여행 후 장롱이나 서랍에 보관하며 쓰지 않는 달러들을 한데 모아 은행에서 환전해 원화로 되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말연시 사회 공헌 활동을 위한 재원으로 쓰일 예정이라고 한다.

우림건설 김진호 총괄 사장은 "10년 전 환란 당시 '금 모으기 운동'이 전개되면서 환란 위기 극복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며 조기에 IMF 시대를 마감했다"며 "이번에도 '달러 모으기'를 통해 외화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국내 경기의 빠른 회복을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하게 됐다"고 이번 캠페인의 취지를 밝혔다.

한신공영, 주한 베트남 유학생 초청 행사

한신공영이 지난 9월 28일, 서울 삼청동 베트남 대사관에서 '제4회 주한 베트남 유학생 초청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베트남 대사관과 베트남 유학생회가 공동 주관하고 한신공영이 4회 연속 후원하고 있는 본 행사는 베트남 독립 기념일(9월 2일)을 축하하고 한국 내 유학 중인 베트남 유학생 간의 교류와 우의, 격려를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올해는 전국에서 700여 명 이상의 베트남 유학생이 참석했으며 제2기 주한베트남유학생회의 출범을 공식적으로 알리기도 했다. 한신공영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본 행사를 지원할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좀더 많은 베트남 유학생들이 참석할 수 있는 방안을 유학생회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론칭 2주년 브랜드 쇼

현대건설(대표이사 이종수)이 브랜드 론칭 2주년을 맞아 응암 힐스테이트 모델하우스에서 '2008 힐스테이트 브랜드 쇼'를 개최했다. 지난 2006년 론칭 이후 '집에 담고 싶은 모든 가치'를 키워드로 아파트 외관과 인테리어, 조경 등 모든 부문에서 가치 높은 주거 상품 및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노력해온 현대건설은 이번 브랜드 쇼를 통해 지난 2년간의 힐스테이트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힐스테이트의 방향과 상품 개발 계획 등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브랜드 쇼에는 건축가 승효상이 힐스테이트 브랜드 컨셉트를 반영해 설계한 프로토타입(Prototype : 표준 모형) 모델하우스를 소개, 힐스테이트의 패턴 · 미래형 디자인 등 상품 컨셉트 및 상품 개발 아이템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대건설 이종수 사장은 "고객을 감동시키는 것은 어느 하나만 잘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도 힐스테이트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며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대한민국의 아파트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앞으로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차별화된 서비스와 상품 등 힐스테이트만의 차별화 · 고급화된 아파트를 선보일 계획이다.

GS건설, '건설품질경영대회' 건축 · 플랜트 부문 종합 대상

GS건설이 한국건설품질협회가 주관하는 '제1회 한국건설품질경영대회' 총 4개 부문 중 건축 및 플랜트 부문에서 종합 대상을 받았다. 이와 함께 토목 분야 부문 상인 고객만족상(CS상)도 받았다. 올해 처음 제정된 이 대상은 건설 품질 경영 모델을 발굴 · 보급하고 이를 통해 우수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로 건축, 주택, 플랜트, 토목 등 총 4개 부문에서 평가가 이뤄졌다. GS건설은 전략적 리더십과 경영 시스템, 혁신 관리와 상생 경영, 건설 품질 경영 성과 항목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자재, 인력, 장비, 기술,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인 TPMS(Total Project Management System)를 이용해 생산성을 향상시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